돈 뺏고 옷 벗겨 촬영 … 납치·감금·성폭행까지

어른 빰치는 학교 폭력

새 학기 맞아 다시 기승

새 학기를 맞아 중·고교생들의 학내외 폭력·갈취 사건이 또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들어 일어나고 있는 학교 폭력은 등하교 길에서 어린학생의 금품을 빼앗는 정도를 벗어나 대담화·흉포화되고 있다. 특히 10대 중·고교생들이 또래 학생들을 납치·감금하거나 성폭행·추행하고, 동영상 또는 사진 촬영을 통해 경찰이나 부모에게 신고하는 것을 막는 등 성인들의 강력사건을 연상케하고 있다.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난 학교 폭력사건은 총 1천815건. 하루 평균 5건꼴로 일어난 셈이다. 지난 2006년 2천358건에 비하면 다소 줄었지만 수법은 더 흉포화됐다.

광주북부경찰은 지난달 31일 초등학교 여자 후배의 돈을 빼앗은 뒤 집에 데려가 속옷만 입힌 채 사진을 촬영한 남모(13·북구 각화동)양과 광주 M중 2년 신모(13)양 등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남양 등은 지난 1월 16일 신양의 초등학교 후배인 광주 모 중학교 1년 K(12)양을 북구 각화동 한 PC방으로 불러내 현금 4만7천원을 빼앗은 혐의다.

남양 등은 또 K양을 자신의 집에 데려가 속옷만 걸치게 한 뒤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신고하거나 부모님에게 알리면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범행 전 K양에게 돈을 마련해 올 것을 요구했으나 말을 듣지 않자 신양을 시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으며, 신양과 같은 중학교에 배정받았던 K양은 이들을 피해 전학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광주서부경찰은 지난달 30일 여중생들을 위협한 뒤 폭력을 휘두른 임모(16·경기도 성남시)군 등 4명을 공갈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군 등은 지난달 29일 오후 12시 20분께 서구 화정동 모 초등학교 앞길에서 수업을 마치고 귀가 중이던 광주 모 중학교 2년 김모(14)양 등 8명에게서 현금 5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김양 등 여중생 8명을 좁은 골목길로 데려가 "돈을 내놓지 않으면 때리겠다"고 협박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부경찰은 또 지난 2월 23일 오후 4시30분께 서구 매월동 자동차 매매상가 인근 앞길에서 광주 S고 1년 박모(15)군을 폭행하고 현금 3만원이 든 지갑을 빼앗은 광주 S중학교 3년 박모(15)군 등 2명을 공갈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광주북부경찰 관계자는 "신학기를 맞아 세를 과시하고 용돈을 마련하려는 불량 학생들이 늘고 있다"며 "학기 초에 폭력사건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선의의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집중 단속 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1학생 1악기' 위하여 … 광주시서부교육청은 학생 1명이 악기 1개를 다루도록 한 광주시교육청의 문화예술교육 정책에 따라 오는 8일까지 초등학교 교사 대상 하모니카 지도방법 연수를 실시했다. 지난달 31일 광주 효덕초교에서 열린 첫날 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하모니카를 연주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 상무 축구단 집단 식중독

원정경기후 이동 중 비빔밥 먹고 설사…내일 홈경기 연기

프로축구 광주 상무 선수단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일으켜 2일 예정된 2008 삼성 하우젠컵 대구FC와 홈 경기 개최가 연기됐다.

광주는 지난달 31일 한국프로축구연맹에 공문을 보내 선수단의 세균성 장염 집단 발병에 따라 경기 개최일 변경을 요청했다.

프로연맹은 광주의 요청에 따라 상대팀인 대구와 협의를 거쳐 해당 경기를 6월18일 오후 7시30분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치르기로 했다.

선수들은 지난달 29일 부산 아이파크와 K-리그 3라운드 원정경기를 치르고 다음 날 부산을 떠나 광주로 이동하던 중 한 음식점에서 생고기 비빔밥을 먹은 뒤 설사 증세를 호소했다.

선수 중 김승용, 마철준, 이길훈 등 3명은 설사가 심해 광주의 한 병원에서 치료 후 링거 주사를 맞고 퇴원했다. 나머지 선수들은 같은 증세를 보였지만 증세가 경미해 안정을 취한 뒤 이날 오후 훈련을 정상적으로 소화했다. /김여울기자 wool@

일산 초등생 납치 미수

경찰 뒤늦게 '범석'

일산 초등생 납치미수 사건을 수사 중인 일산경찰서 수사본부는 사건 발생 5일 만인 지난달 31일 경찰인력 170여명을 투입해 아파트 주변을 중심으로 탐문수사에 나서는 등 범인 신원 파악에 수사력을 집중했으나 이렇다할 성과를 얻지는 못했다.

수사본부는 이날 접수된 5건의 제보 가운데 지난달 28일 오전 8시20분께 A초교 정문으로부터 50여m 떨어진 곳에서 흉기를 든 남자가 목격됐다는 내용의 제보에 대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A초교에 경찰관을 보냈으나 학부모 등의 반대로 목격 학생의 진술을 얻지는 못했다.

수사본부는 CCTV에 선명하게 찍힌 범인의 얼굴 사진이 담긴 전단 1만장을 배포하고 사건발생 지점 인근인 주엽, 마두, 대화, 탄현동을 4개 권역으로 나눠 PC방과 찜질방, 사우나 등을 다니며 범인을 찾았지만 역시 소득이 없었다.

수사본부는 범행 현장과 도로주변의 CCTV를 확인하는 작업도 벌였지만 제3의 목격자 등 아직 단서가 될 만한 것을 찾지는 못했다.

한편 이날 이명박 대통령은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일산경찰서를 방문, 수사진행상황 등을 보고 받고 경찰의 안일한 태도를 질책한 뒤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앞서 김도식 경기지방경찰정장도 "경찰의 안일한 대처에 깊은 사과를 드리며 범인을 조기에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사건 수사와 별도로 경찰은 경찰청 5명과 경기청 5명 등 10명으로 구성된 감찰반을 일산경찰서에 보내 납치미수 사건을 단순폭행으로 보고하고 사흘이 지나서야 CCTV 화면을 확보하는 등 초동수사를 못한 부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체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정아씨 징역 1년6월 변양균씨는 집유 선고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김명섭 판사는 지난달 31일 학력을 위조하고 미술관 공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 등으로 구속기소된 신정아(36·여)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김명섭 판사는 또 개인사찰인 울주군 흥덕사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등) 등으로 함께 구속기소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신씨는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 선정과정에서 허위경력을 이용해 예술감독으로 선정됐으며 미국 대학 유학 학력을 위조했고 성곡미술관 학예실장으로 재직하면서 기업후원금 등을 횡령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가진 자는 겸손이 필요하고 이들의 기쁨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돼야 하는데 피고인들은 모두 가진 자이면서 주변 사람들을 오히려 불행하게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복지법인 인허가 물의 광주시 국장 직위해제

광주시는 사회복지법인 인허가 과정에서 물의를 야기한 오모 국장을 지난달 31일자로 직위해제하는 한편,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사법당국에 수사 의뢰키로 했다.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1월 광산구 신가동에 장남 명의로 N복지법인 허가를 신청한 광주시의회 A의원에게 복지법인 설립허가를 내줬으며, A의원은 시설 부지를 아들과 식당을 운영하는 B(여·47)씨의 공동명의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는 "A의원이 애초 법인 허가를 받은 뒤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광주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B씨는 당시 'A의원이 로비자금 등으로 1천500만원을 가져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이번 사안이 A의원과 B씨와의 다툼에서 비롯된 만큼 조사에 한계가 있어 의혹을 명백히 밝히기 위해 담당 국장을 직위해제하고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또 "감사실 자체 조사 결과, 법인 허가는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공무원이 청탁 등을 받은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버스 운전사 과실땐 수리비 부담은 당연"

농어촌버스 운전사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파손된 버스의 수리비는 해당 운전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2민사부(부장판사 강신중)는 지난달 31일 운전사 안모(40)씨가 버스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안씨는 버스 회사에 6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안씨는 2006년 7월7일 화순군 도곡면에서 화물차량의 적재함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으며, 이 사고로 버스회사는 버스 수리비용 600만원을 지급한 뒤 안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지만 안씨는 1심 결과에 불복, 항소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1년간 무전취식 폭력배 쇠고랑

쌍나팔

○…1년여 동안의 호텔 숙박비와 술값·밥값을 내지 않고 떼어 먹은 폭력배가 경찰에 구속.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006년 8월부터 해남군 문내면 우수영 관광단지 내의 모 호텔에 1년여 동안 투숙하면서 호텔 사장 오모(47)씨를 협박해 1천300만원 상당의 숙박비를 내지 않은 이모(49)씨를 폭력 및 갈취 등 혐의로 구속.

○…이씨는 또 우수영 일대 유흥업소와 식당 등 4곳에서도 폭력배임을 내세워 400만원 상당의 식사와 술을 먹고 마시기도 했다는 것.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해남군 일대에서 폭력배들을 대동하고 호텔·단란주점·식당 등을 찾아가 마치 자신 소유의 업소처럼 이용한 뒤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업주들에게 교도소 수감 전력과 호랑이 문신 등을 내세우며 협박, 폭행을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최권일기자 cki@